

치 사

세상의 만물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여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절기에, 20회를 맞이한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에 함께 해주신 문학인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의 주인공인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와 불교문에 신인상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역사에서도 문학은 인간의 영혼을 향기롭게 하는 표현 예술의 으뜸이자 정신의 꽃이라 불리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문학은 불교의 사상과 정서를 바탕으로 정진의 참마음이 스며있기에, 깊이가 한층 더하는 창작 예술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밝히는 지혜로움과 대자대비 구세원력에 따라, 어둠 속에서 해매는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보살행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고마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문학은 너와 나의 경계를 지우고 타인도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하자는 참된 가르침을 감동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폐해로 인해 자연 생명이 훼손되고 우리의 삶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에게 무욕의 정신과 자타불이의 삶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학은 이러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에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꽃향기를 드리우고 정신의 삶을 선도해 나가는 문학인 여러분이야말로 종교가 갖는 역할과 책무

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수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와 나를 구분 짓지 않고, 내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며 모든 생명을 깊이 존중하는 창작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쉽 없이 훌륭한 가치를 인류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품들이 모두 이러한 불교문학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발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